

제로-형태와 제로-기능으로 분석한 렘콜하스건축 분석

An Analysis of Remkolhaas Architecture in Zero-Form and Zero-Function

○편 아 현* 이 호 원**
Pyun, A-Hyeon Lee, Hyo-Won

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s the architecture of Rem Koolhaas through the lens of Object-Oriented Ontology (OOO), highlighting architecture as an autonomous object beyond functionalist and socio-political interpretations. By applying Graham Harman's concepts of zero-form and zero-function, it analyzes the indeterminate forms and multilayered networks of meaning present in Koolhaas's works. The case studies reveal the non-linear spatiality, evental qualities, and material autonomy of his architecture. Ultimately, the study argues that approaching architecture as an "object" expands the horizons of architectural theory while complementing existing sociological and semiotic interpretations.

키워드 : 렘 콜하스, 객체지향 존재론, 제로-형태, 제로-기능

Keywords : Housing Rem Koolhaas, Object-Oriented Ontology, Zero-form, Zero-func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20세기 후반 이후 건축 담론은 기능주의적 합리성과 사회·정치적 맥락을 강조하는 해석에 집중해왔다. 특히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건축은 도시 프로그램과 권력, 자본주의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며, 기호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건축을 특정 맥락의 반영물로만 이해하는 한계가 있으며, 건축 자체가 지니는 자율적 존재론적 지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최근 철학 분야에서는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이 새로운 사유의 틀로 주목받고 있다.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의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은 전통적인 현상학이나 해석학이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에 두었던 것과 달리,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모든 존재자가 고유한 실체성과 독자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건축은 인간의 사용이나 해석에 종속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 객체(object)로 간주된다.

OOO는 인간 중심적 해석에서 벗어나 사물과 객체를 독립적 실체로 바라보며, 상호 환원 불가능한 존재의 층위를 강조한다. 건축을 단순히 기능이나 기호로 환원하지 않고,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ehw@jnu.ac.kr)

독립적 객체로서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렘 콜하스(Rem Koolhaas)의 건축 작품을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의 철학적 틀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의 건축적 사유가 지닌 자율성과 존재론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건축 담론은 주로 기능주의적 해석¹⁾이나 사회·정치적 맥락²⁾ 속에서 콜하스의 작업을 이해해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건축을 단순히 외적 요인에 종속된 결과물로 한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하먼(Graham Harman)이 제시한 ‘제로-형태(zero-form)’와 ‘제로-기능(zero-function)’ 개념은, 객체가 외형적 의미와 기능적 목적에 의해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³⁾ 제로-형태는 건축의 물리적 형상이 기호적·상징적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독자적 존재성을 드러냄을 의미하며, 제로-기능은 건축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지님을 설명한다.⁴⁾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해 본 연구는 콜하스 건축에

1) 기능주의적 건축 해석은 근대 건축 운동과 함께 확립되었으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2) 콜하스의 S, M, L, XL(1995)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3)4) Graham Harman(김효진옮김), (2023) Architecture and Object(건축과 객체), 갈무리

서 드러나는 비규정적 형태, 사건적 공간성(eventual spatiality), 그리고 다층적 의미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콜하스 건축은 단순히 사회적 맥락의 산물이나 기호학적 장치로 환원되지 않으며, 독립된 객체적 실체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예컨대, 램콜하스의 대표작들은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자율적 건축적 객체성을 드러내며, 이는 OOO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램 콜하스의 대표적 프로젝트들 중, 비선형적 공간 구성과 사건성(event)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들에 한정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객체지향 존재론과 하만의 철학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둘째, 램콜하스의 건축적 관점을 분석하고, 셋째,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콜하스의 주요 프로젝트를 사례 연구하여 건축적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건축을 ‘객체’로 이해하는 철학적 접근이 현대 건축 이론과 실천에 제기하는 의미를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은 21세기 초 철학자 그레이엄 하만(Graham Harman)을 중심으로 제안된 사유 체계로, 전통 철학이 지닌 인간 중심적·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OOO는 인간의 지각 여부와 무관하게 객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객체 간의 관계는 결코 하나의 체계나 맥락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⁵⁾ 따라서 객체지향 존재론에서 객체는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단순한 외형이나 기능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자질이 있다고 여긴다.⁶⁾ (그림 1)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도 물려서 있고, 스스로를 현실화 하는것에 관해서도 물려서 있음⁷⁾을 뜻하는 OOO의 이러한 관점은 건축을 사회적 기능이나 상징적 의미로 축소하지 않고, 독자적 실체로서의 건축을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2.2 제로-형태(Zero-form)

하만은 객체를 규정짓는 표면적 형태가 기호학적 의미로 고정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제로-형태(zero-form)는 객체의 외형이 상징적·기능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 존재성을 보유한다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건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형상으로 환원하지 않는 개

념. 즉, 우리가 건축을 보며 ‘이것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모든 형태 혹은 객체는 독립적인 요소들의 느슨한 단일체로 이루어져있고⁸⁾ 건축의 형태는 단순히 표현이나 장식이 아니라, 기호적 해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규정적 차원을 지닌다. 이는 건축의 자율성을 지켜주며 결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다층적인 모습으로 나타남을 뜻한다.

2.3 제로-기능(Zero-function)

제로-기능(zero-function)은 객체가 특정한 기능이나 사용성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을 프로그램적 요구나 사용 목적의 산물로만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며, 건축이 기능을 초과하는 존재론적 자율성을 지님을 드러낸다. 하만에 의하면 건축의 형태와 기능은 적극적으로 ‘제로화’되어야하며⁹⁾ ‘기능’으로 뜻하는 바는 모든종류의 관계성에서 빼내어진 관계에 관해 묻는 것이며 기능의 비직서화를 뜻한다. 모든객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콜하스의 건축은 단순히 “무엇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기능을 넘어서는 객체적 실체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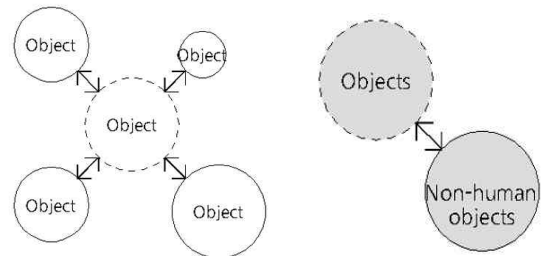


그림1. (Object-Oriented Ontology, OOO)의 독립적객체 관계

2.4 건축적 시사점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의 관점에서 건축은 사회적 맥락이나 기능적 요구와 분리된 자율적 객체로서 이해된다. OOO는 객체의 대상(생기없는 사물, 인간요소, 비인간요소, 둘다를 포함하는 혼성체도 가르킨다)이 그 성질들 사이의 독립성, 그리고 그 독립적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관계¹⁰⁾에 관한 이론이며, 이는 콜하스의 건축이 보여주는 비선형적 공간 구성, 사건성(event), 불확정적 매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제로-형태와 제로-기능 개념은 건축의 외형과 프로그램이 단일한 의미로 환원되지 않음을 밝히며, 건축이 다층적 의미망 속에서 독자적 존재론을 드러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3. 램 콜하스의 건축적 관점

3.1 램 콜하스의 건축철학

5),10)Graham Harman(김효진옮김),(2023) Architecture and Object (건축과 객체), 갈무리

6) 이해지, 임종엽.(2024)램 콜하스와 톰 위스콧 건축에 나타난 객체지향 존재론의 재해석 비교에 관한 연구 (2024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통권제81집)

7) 하승우.(2021)객체지향존재론:미묘한 존재론인가 대상지향존재론인가. (문과과학2021년 가을호)(통권 제107호)

8) Graham Harman(김효진옮김),(2023) Architecture and Object(건축과 객체), P.128

9) 이와 관련하여 ‘제로화’ 하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관계에서 빼냄을 뜻하며 어떤 관념적의미이다.

렘 쿨하스는 건축가이자 이론가로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건축 담론의 중심에서 도시와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해 왔다. 렘 쿨하스는 ‘자유를 찾아서(FINDING FREEDOM, 1991)’에서 자신은 구조, 정형화된 모델, 이데올로기, 질서, 계보 등 다양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였다.¹¹⁾ 그의 건축적 접근은 단순한 형태의 창출을 넘어, 도시, 자본, 이데올로기, 욕망, 프로그램, 객체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그는, 도시의 파편성과 비합리성을 건축의 자양분으로 삼고, 그것을 반영하는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건축을 실현한다.

3.2 렘 쿨하스의 건축의 주요 개념

1) 객체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Object)

그의 건축은 도시 맥락에 조화되기보다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객체로 존재한다.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에 따르면, 객체는 기능을 초과하는 독립적 존재로 사유될 수 있으며, 쿨하스의 CCTV 본사는 그러한 존재론적 오브젝트로 기능한다. 렘 쿨하스의 건축은 단지 시각적 형상이나 새로운 조형 실험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도시와 사회, 인간과 객체, 기능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사유하는 철학적 작업이다. 그의 건축은 병치, 다의성, 객체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공간 존재론을 제안한다.

2) 프로그램의 해체와 병치

쿨하스는 근대건축의 기능주의가 설정한 단일 목적 공간 구성의 틀을 해체하고,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병치함으로써 공간의 의미를 확장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커뮤니티공간, 디지털 정보 허브를 통합하며, 공간은 사용자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사건들을 창출할 수 있는¹²⁾ 역할이 가능하다.

3) 다의성과 비선형성

쿨하스는 공간에 단일한 해석이나 목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나의 공간은 다양한 행위와 해석을 허용하며, 이는 탈근대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Seattle Public Library는 부활절적 외형으로 하나의 단일한 건축 형상을 갖지 않고, 크고 작은 덩어리(플랫폼, 공용 공간, 열람실 등)들이 비정형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이는 고전적 의미의 “완결된 형태”가 아닌, 끊임없이 변형 가능한 제로-형태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공간적 해석으로 볼 때 선형적 흐름으로 경험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와 접점을 통해 ‘비선형 체험’을 제공하며 이는 다의적 프로그램의 병렬적 구현이다.

11) 조한, 김남현(2024), 렘 쿨하스 건축에 내재한 들뢰즈의 생성적 사유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8호>(통권286호)

12) Rem Koolhaas, (1994), “Bigness or problem of Large”, S,M,L,XL, New York: Monacelli, p.509-512

4) 형태의 비결정성과 실험성

쿨하스의 건축은 정형성과 대칭성에서 벗어난다. 특히 카사 다 무지카(Casa da Música)는 비정형적 다면체 외피와 내부 공간의 불균형을 통해 기능적 목적성을 초월하는 조형성을 획득한다. 형태는 고정된 스타일이 아니라 상황, 맥락, 프로그램의 산물로 이해된다.

3.3 렘 쿨하스 건축과 객체지향건축의 관계성 분석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의 관점에서 볼 때, 쿨하스의 건축은 제로-형태(zero-form)와 제로-기능(zero-function)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제로-형태의 측면에서, 그의 건축은 외형이 특정한 기호적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독립적 존재성을 유지한다. 제로-기능의 측면에서, 건축은 특정 프로그램적 요구를 초과하며, 기능적 목적에 환원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닌다.¹³⁾ 따라서 쿨하스의 건축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그 자체로 환원 불가능한 객체적 실체로 작동한다. 이는 OOO가 제안하는 객체 중심적 사고와 맞닿아 있으며, 건축을 독립적 존재로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제시한다.

4. 사례분석

4.1 CCTV Headquarters (2008, Beijing)

객체지향 존재론(OOO)에서 제로-형태는 건축이 고정된 상징이나 형태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주되는 잠재적 상태로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즉, 건축은 단일한 기호나 기능적 외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 객체로서 비결정적이고 탈-형태적 속성을 갖는다.



그림2. CCTV Headquarters

<그림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CCTV 본사는 직사각형 마천루라는 전형적 도시라인을 거부하고, 거대한 링 구조를 통해 비선형적 공간 구성과 순환성을 구현한 대표 사례이다. 건물은 단순한 고층 타워를 넘어, 독립된 구조적·형태적 실체로 존재하며, 특정한 기능적 요구에 환원되지 않는다. 제로-형태의 관점에서 CCTV 본사는 기호적 상징성을 거부하며, 독자적인 매스 자체로 자율성을 드러낸다. 거대하지만 비고정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매스를 가지지만, 그 자체가 특정 기능이나 권위의 상징에 갇히지 않으며 고정된 상징을 해체하여 제로-형태적 속성이라 볼 수 있는 “의미없는 형태”로 남는다. 또한 내부의 프로그램적 순환은 제로-기능의 개념과 결부되어, 기능을 초과하는 사

13) Koolhaas, R. 1978. Delirious New York p.10-35

건축 공간 경험을 창출한다. 이는 해지와 병치를 통해 프로그램들이 불연속적으로 충돌하고 병존하면서, 건축은 기능적 통합 대신 모순과 균열을 포괄하는 시스템이 된다. 결과적으로 CCTV 본사는 외부적으로는 형태의 모호함(제로-형태), 내부적으로는 기능의 충돌과 병치를 통해, 건축이 상징도, 기능도 아닌 자율적 객체임을 드러낸다. 이는 콜하스가 건축을 닫힌 체계가 아닌 열린 객체로 제시했음을 보여준다.

4.2 Seattle Public Library (2004, Seattle)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수용하는 유동적 공간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건축은 단순히 ‘도서보관소’라는 기능을 넘어, 비선형적 circulation을 통해 사건(event)을 유발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OOO의 관점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소가 아니라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며, 사용자의 해석이나 사회적 기능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비선형성의 관점으로 볼 때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수직적·층위적 배치 대신, 이 도서관은 여러 기능적 블록들이 서로 다른 각도와 높이에서 접합되어 다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공간 경험을 만든다. OOO는 주로 은폐성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객체와 그 자체의 성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며, 달리 진술하면 반직서주의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¹⁴⁾ 직선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는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적 다의성(열람, 연구, 소통, 휴식, 이벤트 등)은 OOO가 정의하는 객체의 은폐된 심연과 유사한 경험을 생산한다. 이는 도서관을 단일 목적의 건물이 아닌 복합적 객체로 만든다.



그림3. Seattle Public Library

4.3 Casa da Música (2005, Porto)

카사 다 무지카는 불규칙한 다면체 매스를 통해 건축의 비규정성과 사건성을 극대화한다. Casa da Música는 전통적인 콘서트홀의 ‘상자형(상징적 정형)’이나 유기적 곡선 형태와 달리, 불규칙하게 절단된 다면체(poliedro irregular)의 외형을 가진다. 이 형태는 고정된 건축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으며, 보는 위치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열린 형상이다. 제로-형태의 관점에서 이 건축은 특정한 상징으로 고정되지 않고, 다층적 의미망 속에서 자율적 객체로 존재한다. 주변 도시 조직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오히려 단절되어 있지만, 이 불일치는 부정적 충돌이 아니라

자율적 객체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건물은 스스로 “결정되지 않은 존재”로 남아 있으며, 이는 건축이 사회적·기능적 규정으로 단일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공연장 내부의 음악공간의 상징은 외부의 낮은 다면체의 형태로 치환되며 프로그램과 형태의 실험적 결합으로 재구성되어 공연장이라는 전통적 프로그램을 도시적 사건으로 확장시킨다. 또한 제로-기능적 해석을 통해, 공연장이라는 단일 기능을 초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성을 보여준다.



그림4. Casa da Música

5. 결론

본 연구는 램 콜하스의 대표적 건축 작품을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OOO)의 틀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의 건축이 지닌 자율적 존재론적 성격을 드러냈다. CCTV Headquarters, Seattle Public Library, Casa da Música 등의 사례는 제로-형태와 제로-기능 개념을 통해, 콜하스 건축이 사회적 기호나 기능을 넘어서는 독립적 객체로서의 건축임을 입증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콜하스 건축의 비규정적 형태와 사건성을 OOO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해석을 확장하였다. 건축을 객체로 이해하는 객체지향 존재론 (Object-Oriented Ontology, OOO)의 철학적 접근이 현대 건축 담론에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제시함을 확인하였다. 기능주의·기호학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며, 건축의 자율성과 존재론적 차원을 부각시켰다.

참고문헌

1. Graham Harman(김효진 옮김),(2023) Architecture and Object(건축과 객체)
3. 이혜지, 임종엽.(2024)램 콜하스와 톰 위스쿰 건축에 나타난 객체지향 존재론의 재해석 비교에 관한 연구 (2024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통권제81집)
4. 하승우.(2021)객체지향존재론:뭉뚱한 존재론인가 대상지향존재론인가. (문과과학2021년 가을호)(통권 제107호)
5. 조한, 김남현(2024), 램 콜하스 건축에 내재한 들뢰즈의 생성적 사유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8호)(통권286호)
6. Rem Koolhaas,(1994),“Bingenss or problem of Large”, S,M,L,XL, New York: Monacelli, p.509-512
7. Koolhaas, R. 1978. Delirious New York p.10-35

¹⁴⁾ Graham Harman(김효진 옮김),(2023) Architecture and Object(건축과 객체), P.99